

## 박사학위논문에 나타난 간호학 탐구경향

김의숙<sup>1)</sup> · 김광숙<sup>2)</sup> · 김대란<sup>3)</sup> · 김은정<sup>4)</sup> · 성경미<sup>5)</sup> · 신현숙<sup>6)</sup> · 신혜경<sup>7)</sup> · 이영자<sup>8)</sup> · 정석희<sup>9)</sup>

### 서 론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특성을 가진 학문으로, 하나의 학문이 개별 분과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학문만이 가지는 고유한 지식체가 있어야 한다. 이에 간호학자들은 일찍이 인접학문과 구별되는 독특한 간호학적 지식체를 개발하고 축적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 간호학은 학문적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분과학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학문의 발전은 연구를 통하여 지식체가 누적되고 정립되어 이론이 생성되며 이는 다시 연구로 회환되는 계속적인 과정이 전개됨으로써 가능하다. 보다 좋은 연구 방법을 구상하고 지식체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나 지식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그 동안 축적되어온 탐구 경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강점과 약점을 통찰하여 서로 공유함으로써 추후 연구와 지식체 생성 방향을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간호 연구 논문분석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일정 기간동안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 방법측면에서 분석되었다(Kang & Lee, 1980). 1990년대에 들어 와서는 특정개념이나 주제를 기준으로 주로 연구논문이 분석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완술(Park, 1988), 스트레스(Lee et al., 1992), 암관련 연구(Lim & Hong, 1997; Choi et al., 1998), 피로(Byun & Park, 1996), 명상(Kim, 1997), 주장훈련 프로그램(Ha & Choi, 1998), 업무스트레스(Lee, 1996), 만성질환

환아의 가족(Jung, Lee, Paik & Cho, 1996), 건강증진(Kim, 1999) 등이 있다.

한편 간호학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도 발견할 수 있는데,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파악한 연구(Kim, Lee, M. S., Lee, M. H. & Lee, H. I., 1994)와 연구 방법, 연구 분야, 연구 개념의 종류와 그 빈도, 사용된 이론의 종류와 이론의 적용수준을 규명한 연구(Chon et al., 1994; Kim & Lee, 1995), 그리고 주요어를 분석한 연구(Ko, Kim, S. H., Kim, H. G., Lee, G. J. & Lee, Y. S., 1994) 등이 있다. Park, Ha, Kim, Yun, Song과 Jun(1994)은 1982년부터 1991년까지 국내 간호학회 박사학위 논문 87편, 1970년부터 1991년까지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70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 연구문제의 영역 및 이론검증 여부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방법은 탐구되어온 간호현상이나 연구방법 및 이론 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데는 유용하나 한 분과학문의 지식체를 특성짓는 철학적 관점이나 이론, 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탐구경향이나 지식체 생성에 관한 새로운 조망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Kim(1993)은 철학, 이론, 방법간의 가능한 96가지 연계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간호학 지식체 개발의 본질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분석틀은 다원주의(pluralism)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Kim(1993)은 인간과학이자 실무과학인 간호학에서 다원주의적 관점의 수용은 실무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간호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며, 이러한 다원

주요어 : 간호철학, 지식체 유형, 방법론, 박사학위논문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지역사회간호학교실 교수, 2) 미 일리노이대 간호대학 박사후 과정, 3)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생리학 박사과정 중, 4) 포천중문의대 간호학부 연구강사, 5) 미 피츠버그대 간호대학 박사후 과정, 6) 미 일리노이대 간호대학 박사후 과정, 7) 세브란스 새 병원 개원준비위원회 사무부 간호팀장, 8)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교육 및 홍보부장, 9)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질향상실 QI담당 간호사  
투고일: 2003년 9월 4일 심사완료일: 2004년 3월 22일

주의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간호사가 적절한 지식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Lee와 Kim(2002)이 Kim(1993)의 연계적 대안에 기초하여 암환자의 피로에 관한 문헌분석을 통해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체 개발의 현황을 고찰하고 추후 피로에 관한 지식체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고유하면서도 다양성이 증가하는 인간의 특성과 실무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도전의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간호지식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간호학의 탐구경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간호학적 지식체 생성에 있어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5개 대학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277편을 Kim(1993)의 '간호과학에서 철학, 이론, 방법간의 연계적 대안(Alternative linkage among philosophy, theory and method in nursing science)'을 기초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에 나타난 다원주의의 현황과 앞으로의 지식체 탐구방향을 제안하고, 부가적으로 대안적 연계의 틀을 이루는 3가지 축, 즉, 철학, 이론, 및 방법론의 각 측면에서 나타난 탐구특성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영역에서 어떠한 차원들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1982년부터 2000년 8월까지 발표된 국내 5개 대학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313편중 원문확보가 가능한 논문 277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을 선정할 근거로는 박사학위 논문은 새로운 간호 지식체를 개발하거나 혹은 기존의 지식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과학철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일련의 사고과정을 거쳐 간호학적 질문을 명료화하고 관련 이론을 적용하며 이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숙고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간호학적 지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분과학문의 주된 탐구경향을 분석하고 전반적 철학적, 이론적, 방법론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과학문의 학계를 집약하고 이끌어가는(Kim, 2000)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해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료수집에는 논문수집과 논문분석 과정이 포함되었다. 논문수집은 2000년 5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박사학위 논문이 축적되어 있는 5개 대학을 선정한 후 <http://www.koreanurse.or.kr> 에서 해당대학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검색한 후 대학교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논문, 혹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논문 원문을 수집하

였다. 논문분석은 논문수집과 동시에 시작하여 논문수집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연구자들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었다. 논문분석 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이며 총 자료수집 기간은 2년 1개월이 소요되었다.

### 분석틀

우리나라 간호학의 탐구경향을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그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간호지식체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Kim(1993)의 '간호과학에 있어서 철학, 이론, 방법간의 대안적 연계(Alternative linkage among philosophy, theory, and method in nursing science)' 틀에 근거하여 논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Lee와 Kim(2002)이 Kim(1993)의 틀을 이용하여 암환자의 피로에 관한 대안적 연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96가지 대안 중 단지 5가지만을 보고한 예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우선, 철학적 오리엔테이션에 관하여 Kim(1993)은 과학적 실재주의(scientific realism)와 상대주의(relativism)로 구분하였는데, 과학적 실재주의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구조나 과정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이나 설명을 도출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경험적 분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상대주의란 과학적 실재주의와 반대되는 관점으로, 지식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의 목적은 상황에 특수한 패턴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Kim(1993)은 역사적 상대주의와 Husserlian의 현상학, Mark의 갈등철학, 그리고 Habermas의 비판사회철학을 모두 상대주의적 오리엔테이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이 선행한 연구(Kim et al., 2004)에 따르면 단순히 상황을 이해하는 측면과 그 상황속에 숨겨진 억압이나 모순을 드러내어 이를 해방시키고 변화시키려는 관점은 다른 것으로, 후자의 경우는 간호의 실천(praxis)적 요소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ord-Gilboe, Campbell과 Berman(1995)은 지금까지 간호학 탐구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철학적 시각들을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유래한 후기 실증주의적 접근, 경험의 의미 이해와 관련된 해석적, 인본주의적, 자연주의적 접근, 그리고 사회·정치·문화적 요소들을 다룬 비판적 및 해방적 접근 등의 3가지 오리엔테이션으로 분류하였으며, Jacox, Suppe, Campbell과 Stashinko(1999)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m(1993)의 상대주의적 철학적 관점을 보완하여 상황의 이해에만 국한되는 지식체를 상대주의로, 비판과 참여, 해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지식체를 실천주의(Practicism)로 나누어, 결국 Kim(1993)이 제시한 실재주의, 상대주의의 두 개의 철학적 오리엔테이션을

실재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실천주의 등 총 3개의 철학적 오리엔테이션들로 세분화하였다.

두번째, 이론적 측면에서 Kim(1993)은 이론 생성 수준과 지식체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 및 연역적으로 나눈 이론 생성 수준이 방법론적인 수준에서의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식체 유형만을 이 수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기술적(descriptive), 설명적(explanatory) 및 처방적(prescriptive) 지식이 포함되며, 기술적 지식은 현상의 정의와 현상의 의미를 찾아내어 현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현상을 이해하는 지식이며, 설명적 지식은 어떤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지식이고, 처방적 지식은 대상자가 가지는 문제, 결핍에 대응하여 정규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변화지향적 지식을 의미한다.

세 번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Kim(1993)은 현상을 인식하는 철학적 견해에 따라 (1) 외부자적(etic) 견해와 내부자적(emic) 견해, (2)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 (3) 통제된(controlled) 환경과 자연주의적(naturalistic) 환경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외부자적 견해는 연구현상에 대한 편견 없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며, 경험의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이 실제의 본질을 서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반면, 내부자적 견해는 연구자가 현상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동일한 시각으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며, 인간경험은 그들 자신의 의미에 의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적방법론은 논리적 실증주의에 철학적 배경을 두고 연역적 타당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론으로서 환경을 조작하고 통제하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찰을 요구한다. 반면, 질적방법론은 상대주의에 그 배경을 두고 자연적인 환경이나 상황에서 연구자 자신이 자료수집 도구가 되어 '인간경험'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 수준인 통제된 환경과 자연주의적 환경은 실재가 표상화되고 연구되는 방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성된 환경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환경인가를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외부자적 견해(etic)와 내부자적 견해(emic)로 분석하고, 이차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양적 및 질적 방법론으로 구분하기 애매한 논문들은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그 예로는 실재주의적 관점을 추구하면서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Q방법론, 혼종모형 등을 적용한 경우는 외부자적 견해에서의 기타 영역으로, 상대주의를 추구하면서 Q방법론,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혼종모형을 적용한 경우와 간호학적 탐구원리와 간호학의 특성을 메타분석의 방법으로 서술한 논문은 내부자적 견해에서의 기타 영역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기술한 분석틀에 따르면 철학과 이론(지식체 유형), 방법론간에는 54가지의 가능한 연계가 도출될 수 있다.

##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철학과 지식체 유형, 방법론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논문 분석전에 30여 편의 논문을 개별분석 한 후 분석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자들간 분석의 일치도가 80%이상 확보될 때까지 계속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문분석과정 중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공동토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다.

철학과 지식체 유형, 방법론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도출된 자료는 SPS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간호철학, 지식체 유형, 방법론간의 연계

본 연구의 분석틀을 통해 도출가능한 철학, 지식체 유형, 방법론간 가능한 대안적 연계는 총 54개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대안적 연계는 13가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구체적으로, 첫째, 실재주의 철학에서 설명적 지식 유형인면서 외부자적 견해(etic)로 양적 방법을 사용(실재주의/설명/외부자-양적)하여 도출한 논문이 총 128편(46.2%)으로 13개의 대안적 연계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실재주의/기술/외부자-양적(n=52, 18.8%), 실재주의/처방/외부자-양적(n=29, 10.5%), 상대주의/기술/내부자(emic)-질적(n=27, 9.7%), 실천주의/기술/내부자-질적(n=13, 4.7%), 상대주의/기술/내부자-기타(n=10, 3.6%), 실재주의/기술/외부자-기타(n=8, 2.9%), 상대주의/설명/내부자-양적(n=2, 0.7%), 상대주의/설명/내부자-질적(n=2, 0.7%), 실천주의/설명/내부자-양적(n=2, 0.7%), 실천주의/처방/내부자-양적(n=2, 0.7%), 실재주의/기술/내부자-질적(n=1, 0.4%), 상대주의/기술/내부자-양적(n=1, 0.4%) 방법론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연도별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80년대의 경우, 실천주의/처방/내부자-양적방법론의 연계를 이용한 두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철학, 방법론, 지식체의 일관성을 따르는 전통적인 연계(예: 실재주의-설명 혹은 처방적 지식-양적방법론)로 작성된 논문이었다. 반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대주의/기술/내부자-양적(n=1), 상대주의/설명/내부자-양적(n=2), 상대주의/기술/내부자-기타(n=4), 실재주의/

〈Table 1〉 Linkage of nursing philosophy, knowledge type and methodology

Methodology		Philosophy and Knowledge type Dimension								Total n(%)	
		Realism			Relativism			Practicism			
		Des n(%)	Exp n(%)	Pre n(%)	Des n(%)	Exp n(%)	Pre n(%)	Des n(%)	Exp n(%)		Pre n(%)
E t i c	Quan.	52 (18.8)	128 (46.2)	29 (10.5)							209 (75.5)
	Qual.										
	Other	8 ( 2.9)									8 ( 2.9)
E m i c	Quan.				1 ( 0.4)	2 ( 0.7)		2 ( 0.7)	2 (0.7)		7 ( 2.5)
	Qual.	1 ( 0.4)			27 ( 9.7)	2 ( 0.7)		13 ( 4.7)			43 (15.5)
	Other				10 ( 3.6)						10 ( 3.6)
Total		61 (22.1)	128 (46.2)	29 (10.5)	38 (13.7)	4 ( 1.4)		13 ( 4.7)	2 ( 0.7)	2 ( 0.7)	277 (100)

Des : Descriptive, Exp : Explanatory, Pre : Prescriptive, Quan : Quantitative, Qual : Qualitative

기술/외부자-기타(n=8), 실재주의/기술/내부자-질적(n=1), 실천주의/설명/내부자-양적(n=2), 실천주의/처방/내부자-양적(n=2) 등으로 기존에 불일치로 간주되었거나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대안적 연계를 사용한 논문들이 수 편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는 부부조화, 노인의 건강동기와 건강신념과 환자역할행위와의 관계, 초산모의 역할수행에 대한 합의된 목표달성, 노인의 건강행위 구조이해, 영유아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 한국인의 정신건강개념 범주와 행태, 희망, 영아의 아버지 됨, 간호사의 주장훈련과 갈등, 물질사용장애 청소년의 회복과정 등이었다.

## 간호철학

박사학위논문을 발표 연도에 따라 간호철학의 관점을 실재주의, 상대주의, 실천주의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s by nursing philosophy

Philosophy	Year			Total n(%)
	1982-1989 n(%)	1990-1999 n(%)	2000 n(%)	
Realism	57(20.5)	147(53.1)	14( 5.1)	218(78.7)
Relativism	6( 2.2)	34(12.3)	2( 0.7)	42(15.2)
Practicism	3( 1.1)	9( 3.2)	5( 1.8)	17( 6.1)
Total	66(23.8)	190(68.6)	21( 7.6)	277(100.0)

연구대상 논문 총 277편 중 90년대 이전에 발표된 논문은 총 66편(23.8%)으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명확한 철학적 입장을

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인간을 생리적 기능을 가진 존재나 환경에 적응해 가는 존재로 보고 인간이 경험하는 부정적 건강상태를 간호사의 적극적인 중재로써 통제해 주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시도되었다는 등의 서술을 통해 철학적 입장을 파악하였다. 이 때 사용한 지식탐구의 접근법은 57편(20.5%)의 논문이 논리적 실증주의의에 근거를 둔 실재주의의 관점에서 전개되었고, 6편(2.2%)이 상대주의, 3편(1.1%)이 실천주의의 관점에 근거하여 연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에 보고된 논문은 총 190편(68.6%)으로, 실재주의적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이 147편(53.1%)으로 가장 많았고, 상대주의적 관점의 논문도 34편(12.3%)이 발표되었다. 한편 왜곡된 사회구조나 문화적 억압에 대한 비판과 참여, 해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실천주의적 관점에서 간호대상자를 바라보고 이들의 문제해결을 시도했던 연구들이 90년대에 들어서 총 9편(3.2%)이 발표되었다. 불임여성의 경험에서 여성성 상실의 사회적 의미, 성의 현상으로 본 여성의 돌봄, 간질환자의 치욕감, 간호사의 상대적 권력과 갈등, 자궁절제술 후의 변화, 간호사의 갈등정도와 갈등관리 양상, 유산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상실경험, 구타당하는 아내의 경험 등이 실천주의 시각에서 출발한 논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00년 이후에 보고된 논문은 총 21편(7.6%)으로 14편(5.1%)이 실재주의적 관점에서, 2편(0.7%)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5편(1.8%)이 실천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주목할 특징은 이 때부터 청소년 폭력이나 중년남성의 실직 경험 등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간호의 관심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 지식체 유형

지식체 유형을 Kim(1989)의 세 가지 지식체 유형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s by knowledge type

Knowledge type	Year		Total n(%)
	1982-1989 n(%)	After 1990 n(%)	
Descriptive knowledge	27( 9.7)	85(30.7)	112( 40.4)
Explanatory knowledge	22( 7.9)	112(40.5)	134( 48.4)
Prescriptive knowledge	17( 6.2)	14( 5.0)	31( 11.2)
Total	66(23.8)	211(76.2)	277(100.0)

기술적 지식체 유형은 총 112편(40.4%)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을 보면 80년대에는 간호사 및 보건진료원의 업무, 간호 인력 및 원가산정, 가정간호 실태나 가정간호 대상자 선정기준 개발, 가정간호 표준서에 관한 논문을 비롯하여 기타 교육 및 인식에 대한 논문 등이 있었고 90년대 이후에는 단순한 기술적 조사보다는 고통, 성건강, 대상자의 옹호, 간호서비스 촉진 등의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의 명료화 및 개념개발을 한 논문과 더불어 암환자의 적응과정, 임종경험, 무력감, 불임여성의 정서적 경험, 정신분열증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경험,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체험 등과 같은 현상과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찾아내는 현상학적 연구가 다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근거이론적 연구방법을 통해 기술적 이론(descriptive theory)을 찾고자 한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경험, 물질사용장애 청소년의 회복과정, 모성 및 부성 전환과정에 관한 논문 등이 있었다.

설명적 지식체 유형은 총 134편(48.4%)으로 조사되었다. 변수들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로는 간호실무의 예측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혈액투석 환자의 피로 요인, 금연행위 예측, 만성환자의 가족적응, 건강행위 및 자가간호행위 예측모형, 삶의 질 구조모형 등이 있었다. 과정적인 설명을 한 논문으로는 모아상호작용, 환자-간호사의 관계, 암환자의 시기별 불확실성, 대처방식, 우울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가족의 스트레스 과정에 관한 연구 등이 해당되었다. 또한 단위 안의 속성이나 구조들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 논문으로는 정신질환자와 일반성인의 사회적 지지, 생활사건, 우울간의 관계, 환경과 조직과의 관계, 연구나 생활사건 스트레스 측정도구, 건강신념 측정 도구, 암환자의 삶의 질 측정도구 등 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간호사의 상대적 권력과 대인관계 갈등 연구,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등이 포함되었다.

처방적 지식체는 총 31편(11.2%)으로, 여기에는 행위, 실천, 신체기능,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증상, 건강신념, 삶의 질, 대

처능력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간호중재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수술전 환자교육, 지시적 간호중재, 이완요법, 근관절운동, 호흡근훈련, 조강프로그램, 모유수유교육 프로그램, 지시적 심상요법, 통합적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부모역할 확신강화 프로그램,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이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호중재로서 활용되었다.

## 연구방법론

연구대상 논문을 Kim(1993)의 방법론 분류의 세 가지 수준 중 외부자적 견해와 내부자적 견해,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의 두 단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s by research methodology

Methodology		Year		Total n(%)
		1982-1989 n(%)	After 1990 n(%)	
Etic	Quan.	57(20.6)	152(54.9)	209( 75.5)
	Qual.			
	Other		8( 2.9)	8( 2.9)
Emic	Quan.	2( 0.7)	5( 1.8)	7( 2.5)
	Qual.	6( 2.1)	37(13.4)	43( 15.5)
	Other	1( 0.4)	9( 3.2)	10( 3.6)
Total		66(23.8)	211(76.2)	277(100.0)

Quan : Quantitative, Qual : Qualitative

외부자적 견해로 현상을 인식하면서 양적방법론을 적용한 경우는 총 209편(75.5%)으로, 여기에는 대상자의 행위 및 인식에 관해 기술하거나 간호사 또는 건강관련 제도에 관한 내용 설명, 건강행위 및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개념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유추되어진 간호중재 및 프로그램들이 예상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재검증하는 연구들이나, 관련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실제 자료수집을 통하여 모형을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여러 변인과 중심개념들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 모형구축, 표준서 및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연구들과 삶의 질 구조모형, 자가간호행위, 음주행위 및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 가정간호중재 표준서 개발, 수해복구지원 프로토콜 개발 등의 연구들이 확인되었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간호중재와 결과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장하면서 대조군을 둔 실험연구들이 이 그룹에 분류되었다. 한편, 외부자적 견해로 현상을 인식하면서 질적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그 외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적용하여 질적 자료수집 및 분석과 양적인 도구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시 비만여고생의 섭식 변화를 연구한 논문, Q방법론을 이용하여 건강행위에 대한 주관성을 연구한 논문, 간호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촉진 개념을 규명하고자 혼종모형 등을 적용한 논문 등이 90년대 들어 등장하였으며 이는 외부자적 견해에서의 기타영역(n=8, 2.9%)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내부자적 견해로 현상을 인식하면서 질적방법론을 적용한 경우는 총 43편(15.5%)으로, 임종의 경험이나 회복 체험, 돌봄의 경험과 삶의 의미, 양육경험, 대인관계 경험 등 삶의 과정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경험의 본질이나 삶의 의미를 대상자의 표현 자료를 그대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논문들이 이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내부자적 견해로 현상을 인식하면서도 양적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는 7편(2.5%)으로 조사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주변인물로 취급되는 아버지에 대한 실천주의적 시각을 서술하면서도 객관적이고 양적인 측정으로 수량화를 시도한 논문, 인간이해에 바탕을 둔 상대주의적 입장을 밝히면서 개념지도(conceptual mapping)와 혼종모형을 일부 활용하여 부부조화 측정도구를 개발한 논문, 죄의식과 불안을 가진 만성질환자 어머니의 소외된 삶에 대한 실천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유사실험연구설계를 적용한 논문 등이 있었다. 그 외 기타로 분류된 논문 10편(3.6%)에는 간호학적 탐구원리를 모색하기 위해 메타 비평 분석을 이용한 논문, 혼종모형을 이용한 대상자 옹호개념 개발 논문 등이 포함되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5개 대학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277편을 Kim(1993)의 틀로 분석한 결과 총 54개의 가능한 대안적 연계 중 13가지의 연계가 도출되었다. 이 중 대부분의 논문들이 철학과 일치하는 이론과 방법론을 강조한 일원론적 관점(monistic stance, Munhall, 1982; Tinkle & Beaton, 1983)에 입각해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는 전통적 일원론적 시각에서 불일치로 간주되었던 다양한 연계를 사용하였다. 일원론적 관점은 실재주의/기술, 설명, 처방/외부자-양적방법론; 상대주의/기술, 설명/내부자-질적방법론 연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연계는 실재주의/기술/내부자-질적방법론; 실재주의/기술/외부자-기타방법론; 상대주의/기술/내부자-양적방법론; 상대주의/설명/내부자-양적방법론; 상대주의/기술/내부자-기타방법론; 실천주의/처방/내부자-양적방법론; 실천주의/설명/내부자-양적방법론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80년대 후반부터 철학적 및 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주장한 Allen,

Benner와 Diekelman의 보고(Kim, 1993에 인용함)와 Kim(1993)의 견해가 박사학위논문에서도 반영되기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13가지 연계 중 과학적 실재주의적 관점에서 설명적 지식이면서 양적 접근법으로 도출한 논문이 128편(46.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철학적 오리엔테이션으로는 실재주의가 전체논문의 78.7%를 보여 Lee와 Kim(2002)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와 Kim(2002)은 피로에 관한 국내외 문헌 63편을 분석한 결과(국내 9편, 국외 54편) 이 중 59편이 실재주의에 기초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간호학에서는 여전히 경험분석적/후기실증주의적 오리엔테이션내에서 간호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간호학의 패러다임내에서 철학과 일치하는 연구방법론을 엄격히 따르는 것이 더욱 가치있는 과학적 탐구과정으로 간주되었으며(Munhall, 1982; Tinkle & Beaton, 1983) 또한 연구방법이나 이론의 평가항목 중 패러다임과 철학, 방법론, 및 이론의 내적 일관성이 평가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연구자들이 과학적 전통과 간호학계에서 제시한 준거를 고수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13가지 대안적 연계는 암환자의 피로에 관한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5가지의 대안적 연계보다 다양하였으며, Lee와 Kim(2002)이 보고한 연계들이 모두 일원론적 연계의 특성을 보이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다원주의적 특성을 내포하는 논문이 수 편 분석되어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다양한 대안적 연계로 나타나는 다원주의적 특성은 간호실무에서 직면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간호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안적(Kim, 1989), 선택적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Kim, 1993) 측면에서 간호이론을 확장하고 새로운 간호지식체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잠재적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간호계 내부에서는 총체주의(holism)의 철학적 오리엔테이션에 일치하는 이론과 방법론을 지지하는 일원론적 견해와(Munhall, 1982; Tinkle & Beaton, 1983) 철학 및 방법론적 다원주의(pluralism) 관점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으나 점차 다원주의적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Kim, 1993; Letourneau & Allen, 1999), Jacox 등(1999)은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간호학은 인간현상을 이해하는 인문과학임과 동시에 인간현상을 변화시키는 실무과학으로서의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치거나 인간에 대한 이해없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접근은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Kim(1993)은 간호학을 인간실무과학(human practice science)로 발달시키지 않으면 간호과학이 더 이상 과학적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적 다원주의는 일부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특정 상황을 탐구할 때 필요한 다양한 철학적,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13가지의 대안적 연계는 간호학이 인간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천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간호학이 인간실무과학(human practice science)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적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우리나라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 철학적 오리엔테이션은 과학적 실재주의로 이는 서구에서 논리적 실증주의가 간호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전통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으로서의 간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식체를 축적하기 위해 형식적 논리와 탐구과정의 엄격함을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논문의 비율이 80년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증가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상대주의의 패러다임이 수용되어 인문과학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간호학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주목할 점은 비판과 참여, 해방과 실천을 특성으로 하는 실천주의 관점에서 쓰여진 논문이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비율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간호의 탐구영역이 인간만이 아니라 대상자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사회적 구조와 문화 등을 모두 포함할 때,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식만으로는 실천적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는 간호에 있어서 미래를 제시하는데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간질환자, 부인과정 문제를 가진 여성, 간호사의 역할과 같은 주제에 대해 전통적인 접근과는 다르게 사회구조적인 맥락에 기반하여 간질환자의 치욕감, 불임여성의 여성성 상실, 간호사의 상대적 권력 및 갈등 등과 같은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천주의적 시각은 간호학의 실천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간호의 대상을 인간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이 속해있는 유·무형의 환경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간호영역의 확장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간호영역의 확장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청소년 폭력이나 중년 남성의 실직경험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까지도 포함하기에 이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의 한 축이었던 지식체 유형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탐구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식체 유형의 분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 수준의 기술적 지식이 1990년대 이전보다 1990년대 이후에 증가하고 위계적으로 상위수준에 있는 처방적 지식체 유형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에 이러한 처방적 지식이 오히려 감소하고 기

술적 지식이 증가한 것은 실재주의에 제한되었던 철학적 관점이 다원화되면서 상대주의, 실천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간호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는 새로운 연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간호지식체가 개발되었던 지금까지의 경향은 전문영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간호전문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기술적, 설명적 지식과 함께 인간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Kim, 1993)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실무를 통제할 수 있는 (Donaldson & Crowley, 1978) 처방적 지식으로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방법론 측면에서는 외부자적 견해에서 양적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전체의 75.5%(209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내부자적 견해에서 질적 방법론을 따른 논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일관성을 갖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위의 두 가지 중 연구주제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간호학이 탐구하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인간현상은 양적 방법론 혹은 질적 방법론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철학적 다원주의와 마찬가지로 점점 많은 학자들이 방법론적인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Kim, 1993; Letourneau & Allen, 1999; Murdaugh, 1999). 간호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므로 기존의 두가지 방법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기타로 분류한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이나 Q 방법론, 혼종모형 등과 같이 전통적 연구방법이 아닌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절실하며 Dzurec(1989)은 이를 통해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간호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간호학 박사학위논문에서 나타난 탐구경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간호학적 지식체 생성에 있어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시도된 기술적 분석연구이다.

분석대상 및 분석틀은 1982년부터 2000년 8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 중 5개 대학 277편을 대상으로 Kim(1993)의 '간호과학에 있어서 철학, 이론, 방법간의 대안적 연계(Alternative linkage among philosophy, theory, and method in nursing science)'의 틀을 근간으로 하여 철학적 관점, 이론(지식체 유형), 방법론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틀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철학, 지식체 유형, 연구방법론의 도출가능한 54개 대안적 연계 중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계는 13가지였으며 그 중 실재주의 철학에서 설명적 지식으로 외부자적 견해(etic)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총 128편(46.2%)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간호철학의 관점을 실재주의, 상대주의, 실천주의 등의 세가지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실재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논문이 218편(7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주의적 관점의 논문이 42편(15.2%), 실천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논문이 17편(6.1%)이었다.

셋째, 지식체 유형은 Kim(1993)의 기술적, 설명적, 처방적 지식체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지식체 유형의 논문이 고르게 보고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설명적 지식유형이 112편(40.5%)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처방적 지식유형은 오히려 1980년대보다 감소하였다.

넷째, 연구방법론은 Kim(1993)의 방법론 분류의 세 가지 수준 중 내·외부자적 견해와 질적·양적 방법론의 두 단계로 분석한 결과, 외부자적 견해로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가 209편(7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부자적 견해로 질적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는 43편(15.5%), 내부자적 견해로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는 7편(2.5%)이었다. 1980년대에 비해서 1990년대에 내부자적 견해로 현상을 인식하면서 질적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학 탐구에 있어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에서 나타난 13가지의 대안적 연계는 간호학이 인간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는데 유용함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간호학이 인간실무과학(human practice science)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를 수용하여 새로운 대안적 연계를 찾아내는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철학적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원주의를 수용하되, 간호 대상(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실천적 접근을 강조하는 실천주의적 관점을 보다 폭넓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지식체 유형에서 지금까지 간호현상을 기술하고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지식체가 생성된 것에 반해 처방적 지식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실무를 이끌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처방적 지식체 생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넷째, 연구 방법론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방법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여 간호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가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방법을 혼용하거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Byun, Y. S., & Park, M. S. (1996). An analysis of research

- on fatigue. *J Korean Acad Nurs*, 26(4), 868-877.
- Choi, S. H., Nam, M. H., Yoo, E. J., Baik, M. H., Seo, D. H., Seo, S. R., Choi, G. Y., & Choi, K. S. (1998).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 1980-1998. *J Korean Acad Nurs*, 28(3), 786-800.
- Chon, S. J., Hong, K. P., Yang, W. Y., Lee, J. J., Hur, H. K., Kim, J. I., Yim, J. Y., In, J. Y. (1994). An analysis of master's and doctoral thesis in nursing - centered on a nursing, an education, and a public health graduate college -. *The Korean Nurse*, 33(2), 45-58.
- Donaldson, S. K., & Crowley, D. M. (1978). The discipline of nursing. *Nursing Outlook*, 26(2), 113-120.
- Dzurec, L. C. (1989). The necessity for and evolution of multiple paradigms for nursing research: A poststructuralist perspective. *Adv Nurs Sci*, 11(4), 69-77.
- Ford-Gilboe, M., Campbell, J., & Berman, H. (1995). Stories and numbers: co-existence without compromise. *Adv Nurs Sci*, 18, 14-26.
- Ha, N. S., & Choi, J. (1998). An analysis of studies on assertiveness training reported in Korea from 1982 to 1997. *JKANA*, 4(1), 215-228.
- Jacox, A., Suppe, F., Campbell, J., & Stashinko, E. (1999). Diversity in philosophical approaches. In A.S. Hinshaw, S.L. Feetham, & J.L.F. Shaver(Eds), *Handbook of clinical nursing research*(pp. 3-17). CA : Sage Publications.
- Jung, Y., Lee, K. J., Paik, S. N., Cho, K. J. (1996). An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on the family with chronically ill children in Korea.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1), 69-92
- Kang, Y. H., & Lee, S. J. (1980). Practical issues on the nursing research in the scientific journal. *The Korean Nurse*, 19(3), 54-64.
- Kim, E. S. (2000). Issues on nursing in Korea : Theory. In *the 3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Korean Academy of Nursing*(pp. 35-43). Seoul : Korean Academy of Nursing.
- Kim, E. S., Kim, G. S., Kim, D. R., Kim, E. J., Sung, K. M., Shin, H. S., Shin, H. K., Lee, Y. J., & Jeong, S. H. (2004). Clients of nursing as identified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Kim, E. S. (1999). Analysis of health promotion lifestyle and causal factor in Korea. *J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3(1), 12-24.
- Kim, H. G., & Lee, Y. S. (1995). A statistical analysis on nursing-related theses in Korea. *The Korean Nurse*, 34(5), 68-81.
- Kim, H. S. (1989).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Problems and perspectives. In L.H. Nicoll(3rd eds.), *Perspectives on nursing theory*(pp. 166-176). Philadelphia: Lippincott.
- Kim, H. S. (1993). Identifying alternative linkages among philosophy, theory, and method in nursing science. *J Adv Nurs*, 18(22), 793-800.
- Kim, M. J., Lee, M. S., Lee, M. H., & Lee, H. I. (1994). 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on master's and doctoral theses in nursing. *J Korean Acad Nurs*, 24(1), 96-114.
- Kim, M. Y. (1997).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 meditation. *J Korean Acad Nurs*, 27(4), 923-932.
- Ko, O. J., Kim, S. H., Kim, H. G., Lee, K. J., & Lee, Y. S. (1994). A Statistical Study on the Key Words in the Titles of Nursing Related Theses. *J Korean Acad Nurs*, 24(1), 58-69.
- Lee, M. H. (1996). An analysis of researches on stress of clinical nurse, *J Korean Acad Adult Nurs*, 8(1), 180-202.
- Lee, Y. J., & Kim, D. S. (2002). An analytical review on fatigue of cancer patients. *J Korean Acad Nurs*, 32(6), 897-905.
- Lee, E. O., Lee, E. J., Lee, E. H., Jun, K. J., Kim, J. H., Park, J. S., Lee, B. S., & Jung, M. S. (1992). Analysis of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70 to 1990. *J Korean Acad Nurs*, 22(3), 271-296.
- Lim, S. O., Hong, E. Y. (1997).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J Korean Acad Nurs*, 27(4), 857-870.
- Letourneau, N., & Allen, M. (1999). Post-positivistic critical multiplism: a beginning dialogue. *Adv Nurs Sci*, 30(3), 623-630.
- Murdaugh, C. L. (1999). Relationship of research perspectives to methodology. In A.S. Hinshaw, S.L. Feetham, & J.L.F. Shaver(Eds), *Handbook of clinical nursing research*(pp. 61-70).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Munhall, P. L. (1982). Nursing philosophy and nursing research: In apposition or opposition? In L.H. Nicoll(3rd eds.), *Perspectives on nursing theory*(pp. 727-730). Philadelphia: Lippincott.
- Park, S. A., Ha, Y. S., Kim, K. S., Yun, S. N., Song, M. S., & Jun, K. J. (1994). Prospect of theory development for nursing based on the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in Korea.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8(1), 53-82.
- Park, J. S. (1988). An analysis of researches on relaxation technique reported on the academic Journals by 1971 ~ 1987. *The Korean Nurse*, 27(2), 83-98.
- Tinkle, M. B., & Beaton, J. L. (1983). Toward a new view of science: implications for nursing research. *Adv Nurs Sci*, 5(2), 27-37.

## Trends of Nursing Science Inquiry in Doctoral Dissertations

Kim, Eui-Sook<sup>1)</sup> · Kim, Gwang-Suk<sup>2)</sup> · Kim, Dae-Ran<sup>3)</sup> · Kim, Eun-Jeong<sup>4)</sup> · Sung, Kyung-Mi<sup>5)</sup>  
Shin, Hae-Kung<sup>6)</sup> · Shin, Hyun-Sook<sup>7)</sup> · Lee, Young-Ja<sup>8)</sup> · Jeong, Seok-Hee<sup>9)</sup>

1) Professor,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 Lambda Alpha-at-Large, Post-Doctoral Fellow,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Nursing

3)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Physiology,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4) Research instructor,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5) Post-Doctoral Fellow, The University of Pittsburg, College of Nursing

6) Nursing Team/ Team Leader, Severance New Hospital Opening preparation Committee

7) Lambda Alpha-at-Large, Post-Doctoral Fellow,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Nursing

8) Manager of Education and Publicity Dept.,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9) QI nurse, QI depart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inquiry in the discipline of nursing by analyzing doctoral dissertations. **Method:** Th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ere 277 doctoral dissertations from five universities in Korea. The framework for the study was derived from Kim's(1993) alternative linkage among philosophy, theory, and method in nursing science. **Result:** Of the 277 dissertation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13 types of linkages out of a possible 54 types. Most of the dissertations (128 of 277) were done within the linkage of realism/etic/quantitative/explanatory knowledge type. Of the 218 dissertations within scientific realism, 42 were within relativism, and 17 within practicisim. There were 134 dissertations of the explanatory knowledge type, 112 descriptive ones, and 31 prescriptive ones. Studies done within the etic quantitative methodology included 209 dissertations and within the emic perspective, 43 with qualitative methodology, and 7 with quantitative.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alternative linkages for nursing practice and this will lead to expanding nursing knowledge.

Key words : Nursing philosophy, Knowledge type, Methodology, Doctoral dissert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Eui-Sook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oo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361-8139 Fax: +82-2-392-5440 E-mail: euisook906@yumc.yonsei.ac.kr